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주일 미사 :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안희관 요셉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이민찬 비오
2구역장: 김산영 율리아 3구역장: 권혜림 세레나 청년구역장: 이동애 디오니시아 전례위원장: 엄기용 안토니오
여성위원장: 구희선 스텔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변의용 베네딕토 외교위원장: 곽형선 안셀모

※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지킵시다.

- 성당에 늦지 않게 오기
- 안전 거리 유지(방역에 신경쓰기)
- 10월 목주 기도 성월을 맞아 목주 기도 자주 바치기

(녹) 연중 제31주일

(2022. 10. 30.)

*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아드님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선행의 의지를 키워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저마다 집에 모시고, 땅과 하늘의 재물을 이웃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지혜서): 주님, 온 세상도 당신 앞에서는 천칭의 조그마한 추 같고 이른 아침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 주십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 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당신 불멸의 영이 만물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께서는 탈선하는 자들을 조금씩 꾸짖으시고 그들이 무엇으로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키며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시오.

• 제2독서(테살로니카2서): 우리는 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

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 복음(루카):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캐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캐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 저의 임금인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 나이다.
- 저의 임금인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며 죄인들의 회개를 바라시니, 교회가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님의 크신 자비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정하신 주님, 사회와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굽어살피시어,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주님의 슬기와 용기로 공정하고 힘 있게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3.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사회에 어우러져 살지 못하는 소외된 이들을 지켜 주시어, 몸소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를 베풀며 그들을 힘껏 돕게 하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지역 사회 모든 이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서로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마다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천상의 성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에게 주님의 힘찬 능력을 드러내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입 당: 1 나는 믿나이다.
봉 헌: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 501 받으소서 우리마음 / 504 우리와 함께 주여
파 견: 270 로사리오의 기도

공지 사항

- ♣ 밀라노 한국 순교자성당 홈페이지 오픈
- 주소 : www.cmilano.org
신자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본당 25년사 자료 수집
본당 설립 25주년을 기념하고자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본당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올리실 수 있습니다.
- ♣ 오늘 미사 중에 새 사목위원회 봉헌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의 일치와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 뽑힌 새 사목위원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안희관 요셉 총회장님 이하 사목위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 다음 주일(11/6), 김성현 사도요한 신부님 오셔서 주일 미사 집전해주십니다.
- ♣ 2022년 성가대 음악회
- 일시 : 11월 20일, 주일미사 후
- 장소 : Oratorio del Gentilino.

- ♣ 모임/회의
- 10월 28일(금) 2구역 모임완료.

♣ **봉사자**

	오늘(30일)	다음 주일(6일)
제1독서	박세아 루시아	강한 프란체스코
제2독서	박동현 요한보스코	박수정 글라라
복사	강윤이 스텔라	강윤이 스텔라
복사	안서현 안젤라	박동현 요한보스코
계단·화장실	박세아 루시아	강한 프란체스코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30.6 • 교무금 € -